라오스 內 스님 전용 학교 '첫 삽' 뜨다

월드머시, 6월 8일 착공 "일반학교 재학 어려운 점 고려"
2층 규모 약 120명 수용 可… 2017년 6월 완공 예정

월드머시코리아가 라오스 현지에 스님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고등교육을 실시, 라오스의 미래 불교 발전을 도모한다. 라오스에선 스님들이 여성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학교 재학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스님 전용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불교계 국제구호NGO 월드머시코리아(이사장 현진, 이하 월드머시)는 라오스 후아판 주(州) 쌈느아 시(市)에 '스님 학교'를 건립한다. 월드머시는 지난 3월 개최한 정기총회서 2016년 사업으로 '라오스에 승가 중 · 고등학교를 건립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라오스 응투시 분 흐앙 사이야람'이란 명칭의 스님 학교는 '응투 시 분 흐앙 사이야람' 사원 내에 건립 중이다. 총 면적 700㎡(약 212평) 부지 교실 6칸 · 교무실 1칸 · 도서실 1칸 · 화장실 4칸 등 시설을 갖춘 2층 건물로 약 120명 수용 가능하다. 2017년 6월 완공 예정.

예산은 약 15만 달러(한화 약 1억7000만원)가 투입되며 이 중 월드머시가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라오스 불교협회 측이 5만 달러를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열린 착공식에는 이사장 현진 스님, 이사 지일 스님을 비롯해 수끼 흥안몽클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사무총장, 능온 담롱분 후아판 주 불교연합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진 스님은 "라오스 스님들은 일반



국제구호NGO 월드머시코리아는 라오스 후아판 주(州) 쌈느아 시(市)에 '스님 학교'를 건립한다. 사진은 6월 8일 진행된 착공식 모습.

학교에 다닐 수 없단 얘기를 듣고 스님들을 위한 전용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곳서 스님들이 라오스 불교의 미래를 가꿔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능온 담롱분 회장은 "학교건립은 그야말로 이곳 스님들의 꿈"이라며 "학교가 완공되면 라오스 스님들은 불교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지원해 준 월드머시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7일 현진 스님은 비파반 부통령의 초청을 받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측은 부통령 및 현진 스님에게 학교건립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비파반 부통령은 현진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가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법회 개최

6월 11일, 전법 위한 다짐의 시간으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는 6월 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했다.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법회는 부산지역 교사들의 신심을 다지고 수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법회는 범어사 교무국장 범수 스님의 법어 및 찬불가와 가야금 공연,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김경희 회장과 현익채 전 금정중 교장, 김화선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사무총장 등 200여명의 불자 교사가 참여했다.

범수 스님은 "교사는 돌을 옥으로 만드는 소중한 직업"이라며 "불교는 고정된 이미지로 살아가지 말고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고착화, 고정화 되선 안 되며 항상 변화하는 자세로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6월 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마가 스님은 "명상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자식보고 왜 공부 못하냐고 다그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왜 덥냐고 삿대질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마음속 행복단추, 우리 잘 끼워봐요"

낙산 금산사, 마음치유 행복단추학교 개강

"제 별칭은 옥수수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한우를 키우는데 너석들에게 좋은 먹이가 옥수수라 따로 농사도 짓거든요. 옥수수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전 땅부자입니다. 진짜 땅이 많아서 땅부자가 아니라 그냥 조금 재미있는 별칭을 지은 거고요. 땅이 많으면 마음도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 싶어 적어봤습니다."

겨우 10명 남짓 옹기종기 둘러앉았는데 가득 차버린 작은 법당. 별칭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어색함이 묻어 있다.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부끄러움에 혼잣말을 내뱉으며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선 이들은 정작 "할 말 없다"는 혼잣말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멍석 위에서 말문이 트였다. "각박한 사회에서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 전 교회에 다니지만 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에 와봤어요." "전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뒷담화하는 사람이요."

6월 1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에 위치한 낙산 금산사. 일반 사찰과는 조금 다른, 주택을 개조한 허름한 법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문학과 심리치유활동을 하는 금산사 주지 승한 스님의 '마음치유 행복단추학교' 현장이다.

이날 개강한 마음치유학교는 생활에 지치고, 대인관계에 상처받고,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아 떠도는 이들이 모여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리다. 사람 중심의 집단 치유를 목표로 하는 마음치유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00분 동안 마음속에 있는 행복단추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꾸준히 참석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승한 스님과 마음치유학교 참가자들이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여느 모임과 다르지 않게 첫날엔 자기소개가 빠질 수 없다. 단 이름, 나이, 인사말 같은 평범한 소개가 아닌 각자 지은 별칭의 뜻과 다른 이들이 자신을 기억할만한 특징, 덕담이 바탕이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어색함만 가득하자 승한 스님은 "일단 저지르라"며 자신을 드러내보라고 응원했다. 그러자 한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제 아들은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너무 욕심만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10개 중에 1개만 이뤄져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에 아들 보낸 엄마'로

매주 수요일, 100분 행복여행
담아둔 속내 가감 없이 풀며
튼튼한 마음 만드는 데 집중
"나를 찾고 변화시키는 운동"

많이 불립니다. 당연히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아들은 아들이고 저는 저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속내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하는 이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공감했다. 각자의 마음치유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자기소개가 끝난 뒤 승한 스님은 "자신의 마음과 별칭 사이에는 소망이든 성품이든 작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치유는 시작된다"면서 "그 마음의 옷깃에 행복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내 안에 행복이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한 스님은 이어 좋은 만남의 3원칙으로 반가움 · 유익함 · 즐거움을 제시했다. 스님은 "반가움에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고,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유익함을 통해 배우며, 또 보고 싶을 만큼 즐거워야 좋은 만남"이라면서 "앞으로 이 만남을 바탕으로 진정한 나를 찾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첫 만남 말미에 승한 스님의 지도에 따라 '행복한 마음 단련하기'를 체험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나는 행복하다"고 3번 외친 뒤 10초 동안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웃기, 마지막으로 마음 정돈하기가 이어졌다.

별칭 '건물주' 씨는 "자기소개를 할 때 마음에 무언가 얹힌 것만 같았는데 막상 해내고 나니 후련해서 좋았다. 특히 함께 자지러지게 웃는 기회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선사랑' 씨는 "보통 엄숙한 분위기의 사찰과는 다른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복잡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승한 스님은 "행복에는 마음 단련이 필수적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 마음 역시 단련을 통해 더욱 튼튼해진다"며 "일희일비 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바로 섰을 때 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산사는 7월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요가교실(월요일)과 인문학교실(화요일)을 개강할 예정이다. 요가교실은 노영숙 요가강사가, 인문학교실은 허남성 철학박사가 명심보감을 주제로 진행한다.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3157-8243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 영어강좌 회원모집

7월 2일~9월 10일까지, 총 10회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발맞춰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불교 영어강좌가 열린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7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제42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불교 기본교리를 바탕으로 하며 △삼법인 △사성제 · 팔정도 △12연기 △업 · 윤회 △삼분별 △육바라밀 △결집 △불교와 과학 △사찰 건축양식 △한국불교와 조계종 등을 주제로 한다.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스님의 경우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교육으로 인정된다. 수료 시 국제포교사 자격고시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수강료는 일반인 10만원, 대학생 5만원. 국제포교사회 홈페이지(www.idia.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pogyo@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2-2203)로 접수하면 된다. (02)722-2206

윤호섭 기자

공불련, 중국 관음성지로 7월 순례

23~30일, 보타낙가산 · 설두산 등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7월 23~30일 중국으로 제14차 해외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성지순례는 7박8일간 상해 · 영파 · 보타낙가산 · 설두산 등 중국 관음성지를 돌며 불심을 닦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첫날 주가각 · 항주만대교를 시작으로 △2일차 보타낙가산 · 남해관음대불 △3일차 보타산 법우사 · 보제선사 △4일차 설두산 풍경구 · 천태산 국청사 △5일차 신선거 △6일차 무이산 무이정사 △7일차 천심영락선사 · 대흥포 풍경구 순으로 이어진다.

공불련 회원 및 가족 선착순 35명을 모집한다.

공불련은 "해외불교 문화체험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쌓기 위해 해외성지순례를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739-1080

윤호섭 기자

정석당 경봉대종사 34주기 추모다례재



불기 2560(2016)년 7월 1일 (음 5월 27일)

울울창창 영축산의 능선마다 옛 선사의 기백 가득합니다.
아낌없는 풍모로 수행의 견처를 밝히셨던 정석당 경봉대종사의 제 34주기
추모다례를 여러 대덕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자님들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고자 하오니,
두루 걸음하시어 선사의 법향을 느끼고 수행의 뜻을 기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울러, 대종사님의 추모다례를 기해 매년 봉행하는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오니 수혜자들께서도 필히 참석하시어 의미의 법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 (2016) 년 6월 향기로운 날에

극락호국선원 선원장 고원 명정
극락문도회 회 장 경일 법산 합장

일 시 : 2016년 7월 1일 오전 10시 - 추모다례재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장 소 : 극락호국선원 무량수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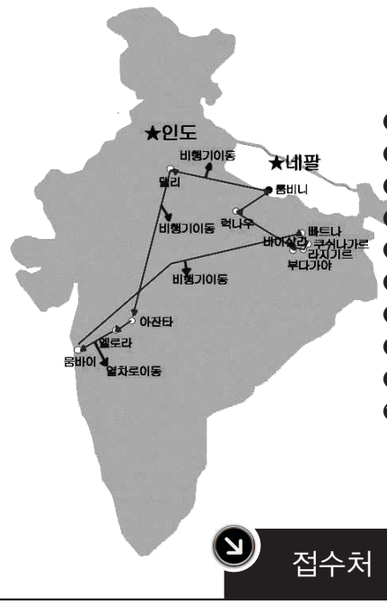
* 점심 공양 후 원광재에서 경봉문도회의가 있습니다.

제108차 천룡사 신행기도회 동참 안내

2016년 12월 9일부터 ~ 21일까지 (13일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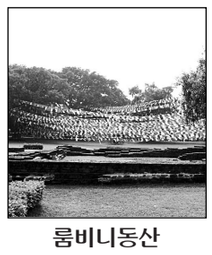
천룡사 신행기도회에서는 108번째로 맞이하는 신행기도를 부처님께서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轉法, 열반涅槃에 드신 성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108차 신행기도信行祈禱는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스님과 함께 떠나며 인도印度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동굴을 순례하는 거룩한 인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사 108차 신행기도회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실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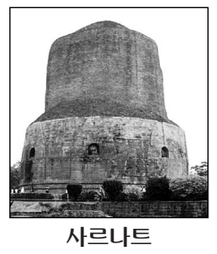
● 신행기도회 예상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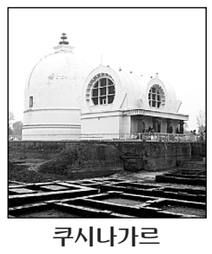


▶ 성지순례지 ◀
❶ 룸비니(부처님의 탄생지)
❷ 부다가야(깨달음을 얻으신 곳)
❸ 사르나트(처음 설법하신 곳)
❹ 쿠쉬나가르(열반에 드신 곳)
❺ 라즈기르(왕사성)
❻ 스라바스티(기원정사)
❼ 바이샬리(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곳)
❽ 상카시아(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곳)
❾ 나란다(불교 최초의 학교)
❿ 피르라화 : 카필라 바스투(사키아)족의 도읍지로 예상

〈인도 국내선 비행기 3회 이용〉


룸비니동산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부다가야

접수처 : 천룡사 종무실 062)234-1338, 010-8932-1825